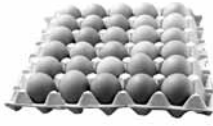


‘정유鷄란’…닭이 비싸냐 달걀이 비싸냐



최악의 AI… 특란 30개 들어 1판 1만3000원까지
닭고기 소비 기피 심리 확산… 생닭 1kg 5036원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품귀 현상을 빚는 계란 가격이 닭고기보다 비싸지면서 설(1월 28일) 명절을 앞둔 서민 가계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년 전 5389원이던 특란 30개들이 평균 소매가는 지난 3일 현재 8389원으로 55.7% 급등했다.

특란 30개들이 평년 가격이 5천555원

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8천원을 훌쩍 넘어 최고 1만3000원까지 팔리고 있어 계란 시세가 올라도 너무 오른 셈이다.

반면 1년 전 5694원이던 닭고기 1kg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현재 5036원으로 11.6% 하락했다.

AI 여파로 소비자들의 닭고기 기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수요가 급감하자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가 급감하면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백숙용 생닭(1kg) 가격은 498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aT에서 매년 조사하는 가격만 단순 비교해도 현재 특란 30개들이 가격은 닭고기 1kg보다 1.7배 가까이 비싸다.

그나마 계란 공급 사정이 나은 편인 대형마트에서는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량을 제대로 공급받기 어려운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는 1만원을 돌파한

지 오래다.

계란 한 판 가격이 닭고기값의 2배가 넘는 셈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계란 한 판 가격이 닭고기보다 비싸진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요즘에는 계란이 고기보다 비싸다는 말이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시즌은 명절음식 장만 등으로 계란 수요가 평소보다 50~60% 이상 증가하는 시기여서 AI로 촉발된 ‘계란 대란’ 사태가 큰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중절모로 멋내 볼까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캥골 매장에서 한 소비자가 중절모를 고르고 있다. 최근 중절모는 인기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백화점은 17만원대에 할인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온라인쇼핑몰, 상품 3일내 배송 안되도 납품업체 페널티 금지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상품이 3일 이내 고객에게 배송되지 못하면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페널티를 물리는 관행이 앞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납품업체는 구매 취소를 한 소비자가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을 반송하기 전이라도 먼저 돈을 돌려줘야 했지만 앞으로

는 상품을 받을 때까지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2011년 38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63조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를 중심으로 표준거래 계약서를 마련했으며 특약매입거래는 규모가 작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거래계약서는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페널티 제도는 물건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책임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업체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선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더 싸게 더 작게 ...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급증

김영란법 시행 첫 설 앞두고
유통가 풍속도 달라져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등
굴비·과일 등 실속세트 늘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사실상 첫 명절 연휴인 설을 앞두고 유통가의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백화점들이 김영란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를 크게 늘리고 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광주신세계는 지속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늘리고 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5만원 미만 실속 선물세트의 경우, 2016년 설 행사 대비 품목수를 50%가량 증가했다.

또 지난 추석까지 커피나 차(茶), 디저트 등 가공식품 상품들이 5만원 미만 상품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이번 설 행사를 앞두고 명절행사의 중심인 굴비, 사과, 배, 멸치, 꾹감, 홍삼 등의 상품을 5만원 미만 가격대 상품으로 구성했다.

수산물 중에서도 신세계 명절선물 최초로 5만원짜리 굴비세트를 구성했다. 이번 명절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수협·다미원 안심굴비’세트는 중간급 크기의 국산 참굴비 10마리를 900g으로 구성해 1000세트 한정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설 행사를 통해 사과 산지로 유명한 충주와 배의 명고장 안성

의 사과와 배를 산지 직거래를 통해 실속 구성한 ‘알뜰 사과, 배 세트’ 역시 산지 직거래를 통해 고품질 수삼만을 선별해 담은 ‘강개상인 실적 수삼’세트도 선보인다.

청정지역에서 어획한 ‘멸치 특선 세트’ ‘정관장 서현 세트’ 등 다양한 5만원 미만 실속 선물세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백상일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이번 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첫 명절인 만큼 고객들이 상품 선택에 대한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5만원 미만 상품수도 확대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 본 매장 및 특설 행사장에서 설 선물세트 본 판매전을 진행해 명절 선물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쇼핑기회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날을 앞두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고 올해 선물세트 카탈로그집은 ‘5만원 이하 상품 모음집’이라는 소책자를 끼워서 펴냈다. 여기에는 소포장으로 가격을 낮춘 선물세트 80여종과 상품을 섞어 가격을 낮춘 혼합선물세트 50여종도 추가로 들어갔다.

정육선물세트에서는 돈육이 등장하였고 소고기 선물세트는 기존 2.4kg에서 1kg과 1.2kg으로, 굴비도 10마리에선 5마리로 포장단위를 바꿨고, 수산과 과일 선물세트는 수입과 국산과일의 혼합, 고등어와 육두이 혼합되어 실속형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건강 선물세트는 다양한 홍삼 가공 상품을 소량씩 구성한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입식품 설 선물 인기... 신세계 매출 작년보다 3배 예상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입식품이 설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불황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저렴한 선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설에는 수입산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작년 설에 수입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은 전년 대비 66.6% 증가했다. 반면에 국산 신선식품은 매출이 8.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세계는 올해 설에는 수입산 신선식품 선물 매출이 작년의 3배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산 매출선물물은 4.5%로 전망됐다.

수입산 명절 선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다 경기 부진의 여파로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수입산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작년 21개에서 올해 33개로 수입산 명절 선물 수를 늘렸다. 호주산 구이용 소고기로 구성된 후레쉬 비프 행복 세트는 4만9000에 선보인 다.

그 외 인도양 자연산 새우 다복(5만원), 페루산 애플망고(5만원), 김장속 순명란 세트(러시아산, 5만5000원) 등이 준비됐다.

/연합뉴스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추장등 전방향을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